

Beyond Gillette.

"The third blade is invisible.
It belongs to me."

FERDINANDO FREGA

NANDO THE SCRIBE

THE GILLETTE QUADRILOGY • VOLUME IV

NAPLES-POST.COM

GILLETTE 너머

THE COMPANY · 12

Gillette 4부작의 네 번째 권: 나폴리의 장례 회사를 운영하러 고용되었다가 결국 죽은 이들에게 Gillette 면도기를 처방하게 된 매니저, 이어서 운동복을 입고 치른 자신의 장례식, 체크인 데스크와 온보딩 절차가 있는 내세, 컨설턴트로서 지켜본 다섯 억만장자의 장례식,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 달라는 마지막 요청 — 배달할 때 서명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판권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 다섯 번째 면도날

행동 강령의 서사 개척자. 그는 단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1달러짜리 출판 생태계를 세웠다: 금융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문제가 있다.

ONEDOLLAR-STORIES 생태계 안에서 편집·기획되었다. 디지털 구조: **NAPLES-POST** · **NOASPECTTIME** · **ONEDOLLAR-STORIES.** 2026년 초판 발행. 디지털 독서에 최적화된 깔끔하고 현대적인 조판. 미국에서 출간.

저작권 고지

© 2026 Ferdinando Frega. 모든 권리 보유.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저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복사, 녹음, 그 밖의 전자적·기계적 방법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없다. 다만 비평에 실린 짧은 인용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그 밖의 비상업적 이용은 예외로 한다. 이 저작물의 무단 사용, 복제 또는 배포는 금지된다.

편집자 주

이 책은 Gillette 4부작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권이다.

지은이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전체 구성:

제1권 —『세 개의 면도날. 단 하나의 Gillette.』(2026) naples-post.com

제2권 —『Brand Narrative Gillette』(2026) naples-post.com

제3권 —『불가능한 Gillette』(2026) naples-post.com

제4권 —『Gillette 너머』(2026) naples-post.com

이 책은 서사를 닫지 않는다. 마지막 벽을 허문다.

첫 번째 칼질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시스템에 받아들여지려고 애쓰며 평생을 보낸다. 기업의 시스템. 출판의 시스템. 사회의 시스템. 가족의 시스템.

그들은 적응한다. 협상한다. 인정받기를 기다린다.

나에게는 그런 인내심이 한 번도 없었다.

내 삶은 세 개의 면도날이 빚어냈다.

첫 번째 면도날은 버려진 아이디어 하나를 근대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로 바꾸어 놓은 남자의 것이었다: **King Camp Gillette**.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 The Gillette Company 안에서 보낸 40년 — 아버지는 규율이란 소리치지 않고, 정밀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내게 가르치셨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은 산업과 정체성과 나라와 실패와 성공과 글쓰기와 침묵을 가르고 — 아직도 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시스템들을 가른다.

이 책은 성공을 기리는 책이 아니다. 회고록이 아니다. 비즈니스 지침서가 아니다. 인정을 구하는 문학이 아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묻기를 멈추고, 현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세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의 기록이다.

어떤 이름은 제품을 판다. 어떤 이름은 사라진다. 어떤 이름은 손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세 개의 면도날의 이야기다. 그리고 왜 하나의 이름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일

일은 한 번도 나를 겁주지 않았고,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농담하곤 했다: *"일하고 싶으면 내 위로 뛰어올라."* 그들의 비참함을 쫓아내고, 내게 일이란 돈을 받는 오락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늘 웃고 있었고, 늘 행복했다. 서류상으로는 하루 스무 시간을 일할 때조차. 피로는 아직 나를 붙잡지 못한 사치였다.

시간이 지나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광부였던 할아버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팔았던 아버지, 그리고 나 — 그들의 유전자가 만든 결과물. 나는 달리 될 수가 없었다.

밖으로 드러나는 큰 소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나는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일한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돈은 연극과 문제 사이에서 펼쳐지는 매일의 공연

에 따르는 결과일 뿐이었다 — 앞의 것은 생각하게 했고, 뒤의 것은 해결하도록 몰아붙였다.

그렇게 나는 세계를 돌았다. 65개국이 넘는 나라를. 컨설턴트이자 자문가로서의 삶이 밤을 빼고 모든 시간을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탈리아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2020년이었다. 집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 밀라노 지역 번호였다. 여자의 목소리: *"MERCURY URVAL의 Musolino 박사입니다. 선생님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한 곳이 선생님과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남미에서 막 돌아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밝고 날카롭게 웃더니 스페인어로 바꾸었다: *"Yo busco la cabeza por un trabajo. ¿Entiende?"* 나는 대답했다: *"Claro que sí."*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언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Zoom으로 일정을 잡고 링크를 보내 주세요. 저는 시간을 지킵니다. 저는 진지한 사람입니다." "진지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Gillette 그룹의 아들이시잖아요. 저희는 여러 해 동안 그곳과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 번도 저희를 거치신 적이 없지요." "거기서 일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만날 좋은 기회군요. 무슨 일이 생기든 성공일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딸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결혼하셨잖아요. 방금 들어오셨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세요?" "Giorgia," 내가 말했다. "죄는 말할 때 생기는 게 아니야. 누울 때만 생기지."

우리는 웃었다.

화상 통화

나는 잘 차려입고 나타났다: 면도하고, 깔끔하게, 손목시계, 하늘색 셔츠, 파란 넥타이... 그리고 아래에는 사각팬티만. 아내가 내 바지를 집 어딘가로 옮겨 놓았고, 나는 다른 바지를 꺼내려 해도 여행 가방을 열 수가 없었다.

더웠다. 솔직히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허리 아래를 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통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설명했다: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나폴리의 다국적 기업, 지점 세 곳, 차량 176대, 직원 120명 가까이. 머천다이저 채널과 영업 조직을 운영할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 역량과 맞았다. 그런데 어느 업종이냐고 묻자 그녀가 웃었다.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Marta예요." "저는 Nando입니다."

"장례업계의 시장 선도 기업이에요. 그 회사 슬로건은 이래요: *'죽으면, 당신의 소비 가치가 올라갑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머천다이저가 죽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인지 알아야 했다.

실제 업무는 이렇게 요약되었다: **사후 진열의 시각적 배치 책임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인을 관에 안치하고, 옷을 입히고, 닦고, 가족 앞에 단정해 보이도록 만드는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돈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수락하시면 첫 달은 12,500유로에 경비 별도예요. 계약서는 없어요. 영수증만요."

"왜 인보이스는 없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회사는 그 단어를 어휘에서 지웠어요. 가족들 말로는 고인 대부분이 *'fatture'*의 희생자였대요 — 세금이 아니라 저주요. 그러니 제발 인보이스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근무지는요?" "고르시면 돼요: 나폴리, 바르셀로나, 런던. 사흘 뒤에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나는 생각했다: 평생 산 사람들을 관리해 왔다. 죽은 사람이 어려워 봐야 얼마나 어렵겠는가?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나폴리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요?"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다음에 밀라노에 오시면 저녁을 사 주세요. 결혼한 몸이지만, 하룻밤은 선생님을 위해 완전히 시간을 비워 둘게요."

나는 통화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어섰다. 그녀는 아직 접속해 있었다. 그녀는 사각팬티 차림의 나를 보았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설마 그렇게 일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 사람들은 선생님께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준비가 안 됐어요 — 속옷 차림의 매니저를 볼 준비도요."

배송

나는 나폴리 중앙역에 도착했다. 검은 재킷에 모자를 쓴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다: **sg. FREGA MAN... AGER.**

여기는 어디인가?

그가 인사했다. "먼저 배송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본사로 가시죠."

우리는 Mercedes 300 CDI에 올랐다 — 장의차 버전. 내 트롤리 가방은 앞자리에 실렸다. 뒤에는 자리가 없었다: 관이 있었다. 그날의 배송품.

우리는 고인의 집 앞에 멈췄다. 한 여자가 말했다: "아니요, 이 시간에 죽은 사람은 여기 없어요. 38번지에 가 보세요. 여기는 12번지예요."

Cinecittà가 아니었다. 스페인 지구였다. 가난, 범죄, 아이러니, 생존.

나는 웃기 시작했다. 이것이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는 걸 알았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찾아간 주소에서, 관을 내리기 전에 운전사가 물었다: "죽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잔치는 여기서 해요."

"그런데 내리기 전에, 관값을 치렀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는 회사에 전화했다. 확인되었다. *리버스 클래스* 관이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차 안에서 운전사 Paolo에게 물었다: "리버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를 보았다. "리퍼비시 노트북 같은 겁니다. 재생 관이죠. 보증 기간 1년. 다른 장례 창고에서 가져와서 닦고, 안감을 갈고, 소독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장점은요?" "가족은 반값만 내죠. 돈을 아끼는 겁니다. 나폴리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본사

큰 들판에 둘러싸인 길가의 집 한 채. 그 옆에 창고 두 동. 매일 저녁 같은 트럭이, 같은 운전사가, 같은 시각에 빈 관들을 실어 왔다. 생각할 거리는 되었지만 — 걱정할 거리는 아니었다.

나는 꼬리표 하나를 확인했다: *Made in Austria.* 가짜였다. 진짜 원산지: 12킬로미터 떨어진 곳, **SECONDIGLIANO.**

사장인 Maurizio가 나를 B&B로 데려갔다. 작은 원룸, 실용적이었다. 젊고 친절하고 뚱뚱한 폴란드인 청소부가 있었는데, 지켜보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폴란드어로 인사했다. 그녀는 녹아내렸다.

아내가 전화했다. 나는 그 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진지한 일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바친다. 일은 장난이 아니다.

농부에게는 치즈가 배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절대 알려 주지 마라.

새벽 2시에 Paolo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가야 합니다. 배송이요. 선생님 업무에 대해 지시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내 업무가 무엇인지 말해 준 적이 없었다.

몇 킬로미터. 72세 남자. 심장마비. 옷을 입히고, 닦고, 사진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어떻게 면도하죠?" 그들이 물었다.

"일회용 Gillette를 써."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 그들은 *괭이*라고 부르는 Gillette 면도기를 보여 주었다. 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그들은 거품 대신 비누 한 덩이를 쓰려던 참이었다. "왜 면도 거품을 안 쓰지?"

"PRORASO를 썼어요. 600ml 독점 특가를 200ml 가격에 샀거든요. 돈을 아꼈죠. 다 떨어지자 다시 비누로 돌아갔고요."

"EMULSIONI 시리즈 애프터셰이브를 하나 사 와. 혈액 순환이 없으면 알코올은 피부에 붙지 않아. 이건 붙어."

옷은 가족이 결혼식 정장을 내주었다.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에 입는 옷: 결혼과 죽음.

어디에나 서민의 철학이 있다. 논리는 필요로 대체된다. 그래서 진짜 매니저는 사무실에 머물지 않는다 — 현장에서, 현실이 숨 쉬는 곳에서 산다.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다. 또 다른 집. 40세 남자, 암.

"어떻게 면도하죠?" 새 팀이 물었다.

"시장에 가서 MACH3나 FUSION GILLETTE를 사 와. 저 나이의 남자는 어디로 가든 기한 없는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Gillette 면도 젤도 사 와. 내가 보여 줄게 — 손끝에 조금만 짜면 휘핑크림처럼 부풀어 올라."

그들은 지시를 따랐다. 가족들은 만족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Gillette를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 제품을 팔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다음 날

하루하루가 배우만 바뀌는 연극 같았다. 죽음은 산 사람들 눈에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 그렇지 않다.

한 여자가 사무실에 왔다. 연로한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녀의 부탁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고인은 83세였고, 다리털이 억세게 다시 자라 있었다. 관을 닫기 전에, 그녀는 어머니의 털을 면도해 드리기를 원했다.

나는 여성 팀을 보냈다. 그들은 여성의 의식에 남성용 면도기를 쓰려 하고 있었다 — 좀처럼 만나지 않고, 만나면 자주 부딪치는 두 세계.

90년대까지 여성들은 남편의 면도날을 썼다. 그러다 시장이 여성용 제품을 만들어 냈다. 새로운 문화적 습관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Vanessa에게 가장 가까운 가게에 가서 일회용 AGILITÉ — 우리가 팔던 바로 그 제품 — 나 VENUS GILLETTE, 그리고 SATIN CARE 거품을 사 오라고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7일 뒤, 회사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 **정보**.

토요일 저녁, 팀원들이 급여를 받으려고 줄을 섰다. 나도 줄에 서 있었다. 그러다 줄에서 빠져나와, 그곳을 떠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 좋은 일을 위해 한 것이라면, 돈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Nando

나의 장례식

나는 늘 장례식에 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 사람들을 어떻게 상자에 담겨 실려 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지로 기억하는 편이 더 품위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빠질 수가 없었다. *나의* 장례식이었으니까.

불쌍한 놈 여섯이 관을 멨다. 딸은 전형적인 검은 정장을 거부하고 대신 운동복을 입혀 주었다. "어디로 가시든, 편하게 계셔야죠," 딸

이 말했다. 테니스화까지.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 솜씨 좋게 넣은 내 휴대전화. 내세를 위한 피크닉 세트.

영구차는 그럭저럭 편했지만, 뒤쪽 왼편 쇼크 업소버는 손을 단단히 봐야 했다.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내 왼쪽 고환이 팬티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관 안에는 불이 없어서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영원의 어둠 속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 한 줄기.

성당 입구에서 그들은 나를 나무 받침대 네 개 위에 올려놓았다. 내 유일한 걱정: 나를 제대로 올려놓았을까, 아니면 감자 자루처럼 굴러떨어질까? 그러다 기억났다: 나는 이미 삶의 바닥에 있었다. 죽어서.

신부가 말했다. 약간의 진실, 많은 지어낸 이야기. 그다음엔 나에 대한 글을 읽는 사람들의 행렬. 그러다 한 노파가 다가와 관에 입을 맞추고 물었다: "그를 안에 넣기 전에 키스해도 될까요?"

한 친구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 남편도 넣기 전에 늘 똑같은 걸 물었어요. 마지막 키스 한 번." 아하하하하.

장례가 끝났다. 묘지로 향한 것은 나와 운전사뿐이었다. 주소는 관 위에 직접 적혀 있었다: *Condera 묘지, 납골동, 45번 구획, 23단, 2층, 첫 번째 안치소.* 틀릴 수가 없었다. 인류는 진화했다: 더 이상 남자 구역도 여자 구역도 없었다. 그냥 죽은 사람들뿐. 효율적이었다.

그는 나를 인도하고, 손을 흔들고, 떠났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하지?*

죽은 지 몇 년 된 두 부인이 지나가다가, 장례 조합 평의회가 신참을 위한 새 규칙을 승인하는 동안 커피 한잔하자며 나를 초대했다.

궁금했지만, 피곤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자산, 세상이 단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할 무언가:

궁금했지만, 기진맥진했다. 죽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서류 작업을 떠안기고 있었다. 영원조차 온보딩 절차가 있었다.

Nando

ALDILA' 스트리트, NY CITY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날 밤, 나는 조금 무겁게 먹었다. 감자를 곁들인 피망 튀김, 1킬로그램짜리 돼지 정강이, 레드 와인 두 잔, 그리고 — 우아하게 마무리하려고 — 보를로티 콩 샐러드 한 그릇.

2058년 5월 7일이었다. 나는 겨우 93세였지만, 티가 나지 않았다 — 다시 말해, 광고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칼라브리아 사람: 과묵하지만, 비밀스럽지는 않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그것이 나였다.

아하하하하.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다: 나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내 몸을 보았고, 나는 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 전원을 켜고 이야기 하나를 쓰려 했다 — 너무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 손은 더 이상 보이는 것들을 다루지 못했다.

나는 죽어 있었다. 내세로 가는 길이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첫 질문은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도 아니었다. 아니다. 머릿속에 박힌 단 하나는 이것이었다: **나를 알던 사람들은 내 떠남에 어떻게 반응할까?**

벌써 그들이 눈에 선했다.

"드디어 갔군." —늘 나를 견뎌 온 사람들.

"또 그 사람 수작이야." —비관주의자들.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이군." —WordPress 사람들.

AI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친척과 친구들? 그들은 나보다 먼저 이 경계를 넘었다. 나는 그저 뒤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어깨에 얹힌 손 하나가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왔음을 알렸다. 그리고 우리는 날기 시작했다 —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새처럼도, 비행기처럼도, 우리가 상상해 온 그 무엇처럼도 아니었다. 천사의 날개도, 영화 같은 승천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팔아 온 형식일 뿐이었다.

건너가는 길은 꽤 달랐다.

어깨 위의 손을 보려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새집에 와 있었다.

소포를 배달하는 FedEx보다 낫다. 아하하하하.

입구에서 한 남자가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나는 들어갈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번호표 뽑기" 기계가 폐지되어 있었다. 줄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든 악마를 상징했고, 허용된 대표자는 살아서 그 일을 했던 이들뿐이었다. 그 이상은 없었다.

내 차례가 왔고, 환영의 말은 이랬다:

"아이고, 드디어 당신을 여기 데려왔군. 열두 번, 열두 번의 시도. 당신은 누구지?"

특별한 누구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누군가.

Nando

속편 I

자, 나는 이곳에 도착했다. 적어도 살아 있을 때는 과부의 아들들만 알던 곳.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일들

이? 나는 CEO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잘 차려입은, 아주 예의 바른 여자가 지나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표면에 접힌 쪽지를 놓고는 계속 걸어갔다.

나는 쪽지를 펼쳤다. 방. 시간. 개척자의 방, 11:00.

지도는 없었다. 나는 이미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내 삶의 마지막 시기 — 겨우 35년 — 만 심사 대상이었다. 운이 좋았다. 내가 저지른 나머지 헛짓거리는 시효가 지났다. 아무것도 해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운전할 줄 모르고, 차도 없고, 걷지도 않았는데 — 어느새 그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가 누구였을까?

아무리 애써도 당신은 절대 믿지 못할 거라고 장담한다.

5살의 나다. 그리고 나는 울기 시작했다 — 감동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몇 살로 도착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익숙한 질문이 울려 퍼졌다:

"내가 93살까지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

"응,"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떠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할 준비가 됐냐고 물었을 때는?"

"응," 내가 대답했다.

"너는 여전히 지독하게 일관적이야. CEO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네 숙소를 어디에 배정해야 할지 몰라."

단테는『신곡』을 썼지만, 너의 범주는 예견하지 못했다. Bezos조차 Amazon으로 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Google은 거의 30년 동안 먹통이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시간을 좀 줘.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 달라고 부탁할게."

스탠바이. 나는 그게 마케팅 용어인 줄 알았다. 그러다 혹시 카마수트라 체위이기도 한지 궁금해졌다. 우리는 내세에 있었고, 나는 아직 이 관용어를 공부하지 않았다.

Nando

속편 II

이곳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세어 보려다가 그 숫자가 계속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목소리 하나 —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목소리, 방의 어느 지점에서도 오지 않는.

"2번 방. 오후 1시."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이미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위원회가 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모였다. 긴 회의 끝에 그들은 판정을 내렸다:

"당신은 ONEDOLLAR.STORIE. ALDILA.'의 ETERNITY 버전을 만들 공식 권한을 받았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출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읽어야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곳은 머물 마지막 장소였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 대가로 저는 무엇을 받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단 1달러."

Nando

속편 III

어느 순간 나는 왜 배가 고프지 않은지, 왜 샤워도, 면도도, 늘 하던 아침 일과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얼마나 바보였는지 — 곧바로 분명해졌다: 나에게는 몸이 없었다. 그러니 무엇을 관리해야 한단 말인가?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저 과묵할 뿐이었고, 모든 영혼 뒤에는 드러내지 않는 사명이 있었다.

그때 천장이 말했다. 아니면 바닥이. 이곳에서 방향은 상관없다.

"Frega."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실례지만, 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성은 남겨 두셨습니까?"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받아쳤다: "우리는 이미 당신을 분류할 수도 없고 어디에 둘 수도 없는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참조까지 지우라는 겁니까? 그럼 당신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지상의 7일 안에 가장 유명한 억만장자 몇 명이 이곳에 도착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방문입니까?" 내가 물었다.

"이곳에서는 주식 보유도, 영원의 Wall Street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공개매수가 있긴 하지만, 그건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오는 건 그들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 감독관으로서 당신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죽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늘 그렇듯: 1달러."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합니까?"

"전처럼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미국에서. 실수 없이."

"왜죠?"

"지상에서 무엇보다 그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

"아니요."

"그럼 뭡니까?"

"증기가 피어오를 때의 맨홀 냄새. 그것이 집입니다. 그것이 내 자리입니다."

Nando

속편 IV

그들이 내게 명단을 건넸고, 나는 이 억만장자들이 모두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랐다. 그들을 한 명씩 어떻게 이야기하란 말인가? 마치 국제통화기금 안에 들어서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예외를 요청했다: 한 번에 보고서 하나씩.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Warren 삼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 그는 나의 Gillette를 소유했었으니,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했다.

그다음에 다른 이들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독특하고, 단 한 가지만 가르쳐 준다: 우리는 무언가를 담는 시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릇일 뿐이라는 것.

- **Jeff Bezos의 장례식 →** 돈, 권력, 유산, 미디어
- **Bill Gates의 장례식 →** 기술, 통제, 자선, 지성
- **Elon Musk의 장례식 →** 개인숭배, 혼돈, 열성 팬, 화성
- **Warren Buffett의 장례식 →** 오래된 자본, 승계, 침묵
- **Donald Trump의 장례식 →** 총체적 스펙터클, 파벌, 미디어 서커스

즐거운 독서가 되기를.

Nando

속편 V

Warren Buffett의 장례식 → 오래된 자본, 승계, 침묵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졌다. 소수만 올 것으로 예상했다 — 어쨌든 그는 Berkshire와 함께 많은 돈을 쥔 몇 사람의 그릇에 지나지 않았고,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상업 기업을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김없이 장내를 채운 이들은 기자와 언론, 동료 두어 명, 진짜 친구 둘, 친척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평생의 비서 — 그가 한 번도 함께 자지 않은 그 여자 — 였다. 모두 쉼표 하나라도 붙잡아 기사로, 메모로, 사건 속의 사건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그들 중 누구도 책을 쓰려 하지는 않았다.

Warren 삼촌은 언제나처럼 그들 모두를 앞질러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 손주들을 모아 놓고 사바나의 동물들 이야기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려주는 할아버지

에게 귀 기울이듯이. 다만 그의 사바나는 네브래스카의 사무실이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속삭이며 옆 사람에게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지 파는 게 맞는지 물었다 — 고칠 수 없는 본능이다. 그리고 스승의 조언은 늘 같았다: 시장에서 당신의 돈이 가치를 잃는 것을 지켜볼 각오가 없다면, 집에 있으면서 돈을 침대 밑에 넣어 두라. 어차피 가치는 잃겠지만, 적어도 무엇이 남았는지는 언제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신부의 강론 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 불과 몇 시간 전에 온 것이었다 — 그리고 신부는 직접 읽겠다고 고집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삶의 지표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당신의 가르침은 이미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물을 받고 싶다면, 절대 체를 들고 나가지 마라.

안녕히 가세요, 삼촌.

Nando

Gillette가 빚어낸 사람. 여전히 당신의 충실한 조카입니다, Warren 삼촌.

속편 VI

Elon Musk의 장례식 — 개인숭배, 혼돈, 열성 팬, 화성

나는 더 많은 인파를 예상했다. 그런데 거기 있던 것은 거의 안도한 듯한 매니저들이었다 — 마치 Elon이 소화하기 어려운 식사, 자꾸만 넘어오는 기름진 요리였다는 듯이. 돈이 너무 많은 가난한 남자. 그것이 말없는 헤드라인이었다.

속삭이는 대화 속에 같은 후렴이 반복되었다: 그의 어머니 — 모델이자 청소부 —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그 소년에게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라는 왕관을 씌웠는지, 그런데도 그에게는 모든 것을 물려줄 한결같은 여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의 회사처럼 하이브리드. 반은 천재, 반은 오류.

기자들은 물론 와 있었다. 미디어 서커스는 시청률이 나올 만한 장례식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의식은 늘 그렇듯 — 카메라, 웅성거림, 젖은 꽃 냄새.

그러나 신부는... 신부야말로 진짜 반전이었다.

Elon에 대해 말할 때,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한번은 제 Tesla의 배터리 교체를 도와주고 2% 할인을 해주었지요. 그 순간 덕분에 저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와 함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신과 의사를 불러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Sam Altman**이 뛰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 충혈된 눈, 갈라진 목소리로 — 그는 관 위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 개자식. 나한테 1,300억 달러 소송을 걸었지. 그리고 졌어.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 줄 만족감조차 안 주고 가 버리다니."

화환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백악관에서 보낸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낸 사람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면 모두가 알면서 모르는 척했다.

X로 바뀌고, 다시 수수께끼로 바뀐 그의 Twitter — 그것이 그의 서명이었다. 그가 태어난 날에도, 떠난 날에도 그에게 새겨져 있었다.

Nando

속편 VII

Jeff Bezos의 장례식 → 돈, 권력, 유산, 미디어

나는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말한다. 이것이 나를 가장 흥미롭게 한 장례식이었다 — **돈** 때문도, **권력** 때문도, **유산** 때문도, **미디어** 때문도 아니라 — 중앙집권적 경영이 제국의 2인자에게 어떤 투영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곳곳에 재무적·세무적 버그를 흩뿌려 놓은 사람이었고, 여러 정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오직 그의 인프라에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용인되었다.

그러나 이 불투명함은 장부 안에도 그대로 비쳤다 — 결코 확실하지 않고, 결코 문서화되지 않은 — 그들은 참조와 숫자는 내놓았지만 증빙 서류는 끝내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출판 쪽에서는 독립을 향한 작은 문학적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 *많고 의심스러운 것보다 적고 확실한 것이 낫다*고 외치며.

그런데 성당 안 사람들은 산만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귀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하는 말이 들어왔다: *"들었어? 그 이탈리아 필경사도 죽었대 — 『AMERICA』를 쓰고 세계의 언어들을 했던 그 사람, 그 유명한 225개 언어 말이야.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지, 대가로 돈을 바라지 않고 주었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을 쳤다. 그것은 인간들이 보통 곧바로, 즉각적인 효과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후의 성공** 가운데 하나였다. 당신을 잊지 않는 여자 한 명이면 충분하다 — 그러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다.

Jeff에 대해 신부는 말했다: *"우리는 둘 다 머리가 벗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저도 그렇고요."*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Nando

속편 VIII

Donald Trump의 장례식 → 총체적 스펙터클, 파벌, 미디어 서커스

아메리칸 그리즐리 — 내가 그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 는 죽어서도 한가운데 머무는 데 성공했다.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태어난 존재, 막이 이미 내렸을 때조차 비켜설 줄 모르는.

우리는 이례적인 시절을 살았다. 그는 미국을 그 국경 너머로 늘렸고, 50개 주를 50개 주에 207개의 야망을 더한 것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물러섰다. 보기 드문 자제의 행위 — 혹은 운명이 숨을 고르려 잠시 멈춘 것이었을지도.

베네수엘라 장이 있었다. Maduro가 역사라기보다 영화에 가까워 보이는 장면 속에서 무너졌을 때. 그다음엔 그린란드에 대한 짧은 매혹. 그다음엔 인도양, 마치 그만 읽을 수 있는 사적인 나침반을 따르듯이.

그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조차 늘 지평선을 조금 더 멀리 옮겼다.

화환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아무도 몰랐거나, 모두가 알면서 침묵을 택했다.

X로 바뀌고, 다시 수수께끼로 바뀐 그의 Twitter가 그의 진짜 서명이었다. 그것은 그가 그 방에 들어선 날 그를 새겼고, 그가 떠난 날 다시 새겼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통령님.

Nando

속편 IX

Bill Gates의 장례식 → 기술, 통제, 자선, 지성

인생의 행운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 **받아들이고**, 그다음 알맞은 손아귀로 **관리하는** 것이다. Bill이 바로 그랬다: 잘 쓰인 기회, 하나의 스타일이 되고 하나의 품격이 되는 존재 방식,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무언가.

캠퍼스 밖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때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가 실수로 나와 부딪쳤는데, 젊고 멍청했던 나는 그를 한 대 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는 — 멀리 내다보고, 주의 깊고, 덕과 날카로운 인지력을 갖춘 사람답게 — 나를 보며 말했다: *"이봐, 맥주 두 잔 값 좀 내 줘. 난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20달러를 꺼냈고, 그 여자가 사진을 찍었다.

이런 **개자식** 같으니 — 몇 년이 지나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다니.

그의 장례식에 들어서는 것은 가족 모임에 들어서는 것 같았다. 다만 나는 그의 유산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것을 향한 어떤 야심도 품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계속 속삭였고, 그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 뒤에는 관대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론 중에 신부가 말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교회를 디지털화했고, 이제 고해성사는 몰래 녹음되어 곧바로 교황께 보내집니다."* 참석자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졌다 — 그가 농담이라며 덧붙일 때까지: *"로마로 가지 않습니다. 곧장 CIA로 갑니다."*

기자들은 이례적으로 정중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 일했었고, 모두가 계속 정숙을 청했다. 그 멈춰 버린 시간 속에서 **Bill의 관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가게, 나의 친구.

Nando

NY CITY — 에필로그

결국 모든 것은 이렇게 끝난다: 팡파르도, 박수도, 문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당신, 어딘가에 적힌 당신의 이름, 그리고 끝나기를 거부하는 복도 하나.

죽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은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되는 특권이다. 그것은 끝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망쳐 놓는다. 진실은 언제나 쓸모없어졌을 때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는 내세의 직원처럼 관들 사이를 걸었다. 아무도 읽지 않을 보고서를 쓰는 임무를 띠고. 그리고 마침내 나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여자로 돌아오기로 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하고, 가장 전략적인 존재. 그들은 누가 속아 넘어가는지 보려고 세상이 자신들을 약하다고 부르게 내버려 둔다.

그다음 그들은 내가 어디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그들이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미국.** 어느 주든, 어느 도시든. 나는 단 하나만 보장받고 싶었다: 이번에는 배송을 전문가들이 맡을 것, 그리고 배달할 때 서명을 요구할 것.

그러면 나는 정말로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살게 될 곳, 그리고 다시 죽게 될 곳에. 언제나처럼 같은 평온함으로, 같은 아이러니로, 같은 짧은 걸음으로.

끝.

Nando

주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 그것이 돈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죽었지만, 이야기를 들려준 이들만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Ferdinando Frega